

교회의 선교적 본질

- 김사무엘 선교사 / 2002. 2. 22 -

“선교”란 파송을 말합니다. 복음을 증거할 목적으로 모든 민족에게로 파송하는 것입니다. 이 파송은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근거이며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사명의 기초이기도 합니다.

선교 속에서 교회는 일어나 제 길을 갈 수 있고 교회의 가장 깊은 본질이 요구하는 걸음을 걸을 수 있다고 칼 바르트는 지적했습니다.

이 파송은 세상의 필요로부터 오는 것도 아니요, 종교심의 충동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위압적인 재촉”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어느 선교학자는 밝혔습니다.

따라서 세상에 파송된 교회가 아니면 참 교회가 아니요 교회의 본질은 선교라는 그 말이 바로 정곡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 교회의 선교적 본질을 가장 착실하게 나타내 주는 말씀이 베드로 전서 2장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와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네 가지 이름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옛날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이름들로서 이제는 기독교회가 이스라엘의 이름에 참여하여 참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의도를 실천해 나가는 공동체가 되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제 이 네 가지 칭호를 선교적인 차원에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하신 표현은 이사야 43장21절에서 차용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찬양을 위하여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온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도록 부름을 받았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로서의 특이한 위치와 사명과 특성을 지닐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찬양 받을 수 있도록 그분의 위대하심과 긍휼히 여기심과 살아 계심을 세상에 선포하도록 보냄을 받는데 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섬기는 교회로 인하여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존경하게 되는 것이 곧 선교요 교회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어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라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6절에서 제사장직의 중요성은 제사 드리는 직무보다는 모든 백성들의 생활을 지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하는데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사장은 백성들 위에 있고 제사장은 하나님 면전에서 백성들을 대신하여 서있는 것입니다.

“세계에 대한 증거 사명”의 관점에서 볼 때, 전체 기독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대한 섬김의 책임을 맡고 있고, 교회가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 곧 세상에 대한 봉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제사장 적 봉사를 통해 하나님께 속할 때에 교회는 “왕 같은”이라는 형용을 받게 됩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뜻이요, 하나님의 왕 적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요, 이로 말미암아 왕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변화되어 갈 것이기 때문

에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하셨습니다.

“나라”라는 단어는 이방인을 나타내는 민족이라는 뜻이며,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구별하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만 쓰여지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거룩한 것과 불결한 것이 합하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거룩하지 못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께 나아감을 통하여 죄 씻음을 받고 이제는 불순종의 아들로부터 떨어져 나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들어섰음을 나타냅니다.

이 거룩이라는 표현에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성별된 예배 공동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룩하게 된 이방민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선민으로 구별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만방에 증거 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셨습니다. 교회는 오로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여 하나님 자신이 교회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나니”(요10:28.29). 희랍어 본문에는 하나님 자신의 적극적인 개입이 강하게 표현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을 주장하시며 보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교회,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온 세상에 펼쳐나가는 하나님의 선교가 이 세상 끝날 까지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흑암 중에 처한 인간이 세상에 있는 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공흠밖에 사는 사람이 있는 한, 교회의 선교사명은 계속되어야 하며,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자신이 이런 어둠과 죄 속에 있다가 구속받았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요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과 공흠을 선포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확고한 의식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 건강한 크리스천 전문사역자들의 정직하고 명쾌한 삶의 지혜! - 「온누리칼럼」 제공